

헤르만 바빙크의 은사 이해: 『하나님의 큰 일』 을 중심으로

이재욱

(예사랑교회, 부목사, 조직신학)

- I. 시작하면서
- II.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
- III. 봉사과 직분의 은사론적 이해
- IV. 마치면서: 평가와 제언

[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의 은사와 직분의 관계를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그의 대표 저작인 『하나님의 큰 일』(*Magnalia Dei*)의 '성령의 은사' 부분과 '봉사와 직분'을 설정하였다. 두 부분은 각각의 주제로 논의되지만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바빙크가 이해한 은사의 실현은 직분과 봉사로 나타난다. 그는 은사는 직분을 전제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바라보았다. 또한 신자들의 봉사 원리를 그리스도의 은사 주심으로 보았다. 나아가 은사는 교회 직분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을 섬길 수 있는 다양한 개념으로 이해했다. 이를 통해 은사의 성격을 직분에만 국한시키지 않음을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빙크가 이해하는 성령의 은사를 두 가지 관점으로 살폈다. 하나는 기독교론이며 다른 하나는 교회론이다. 기독교론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정초하면서 성령 부어주심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론은 사도들을 위한 좁은 의미의 성령 부어주심과 교회 탄생을 향한 넓은 의미의 성령의 은사로 구성된다. 이것과 연관되어 성령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건덕과 성도의 연합, 구원의 은덕들로 구체화 되는 것이 강조된다. 둘째, 바빙크의 은사 이해를 교회의 봉사, 직분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살펴보았다. 모든 성도들의 봉사와 직분의 실현은 교회 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다. 이런 이유에서 바빙크는 교회의 지속적인 확장 and 열매 맺음의 원동력은 그리스도의 은사 주심으로 평가한다. 셋째 바빙크의 은사 이해를 평가하고 실천적 측면에서 제언한다.

키워드: 헤르만 바빙크, 은사, 직분, 성령, 교회, 봉사

논문투고일 2023.07.25. / 심사완료일 2023.09.04. / 게재확정일 2023.09.05.

1. 시작하면서

은사란 무엇인가? 제임스 팩커(J. I. Packer)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표현하고 전달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역량으로 설명한다.¹ 그렇지만 김영한이 주시하듯이 은사의 신학적인 이해보다는 은사의 실제적인 사용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² 네덜란드의 신칼빈주의³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역시 수많은 저서와 강연을 남겼지만 은사에 대한 직접적인 저술은 발견하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바빙크 연구가들에게도 은사론에 관한 조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⁴ 이은선이 옳게 지적했듯이 바빙크의 성령론에 있어서 다양한 측면의 논의가

-
- 1 James I. Packer,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홍종락 역, 『성령을 아는 지식』 (서울: 홍성사, 2008), 36; 은사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설명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성민규, 『은사, 하나님의 선물』 (경기: 다함, 2023), 18-25.
 - 2 김영한은 현대 한국교회의 은사의 이해를 신비한 체험 위주의 개인주의적 관점의 여전함을 비판한다. 김영한, “성령사역은 오늘날에도 지속된다.” 김영한 이수영 외, 『영성, 성령은사, 생명-개혁신학적 이해』 (서울: 기독교학술원, 2018), 82.
 - 3 바빙크의 은사 이해는 칼빈의 은사 이해와 매우 유사하다. 칼빈은 은사의 목적을 교회론적 차원에서 강조하고 봉사의 직분을 통한 구체화로 바라보았다. 또한 그의 은사는 직분론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 본고의 목적은 칼빈과의 비교보다는 바빙크의 이해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은사를 더 넓은 봉사와 직분의 맥락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칼빈의 은사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신열, “칼빈의 은사 이해,” 『성경과 신학』 53 (2010), 79-107.
 - 4 제임스 에글린턴(James Eglinton)은 바빙크의 성령론(Pneumatology)을 교회론적으로 접근한다. “구속은 성부에 의해 계획되고 성자에 의해 성취되지만, 성령에 의해 적용된다. 이런 의미에서 바빙크의 교회론은 교회를 성령과 결속시킨다. 실제로 교회를 존재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독특한 창조이다. 바빙크의 성령론 내부에 있는 교회론의 틀은 단순한 구조적 편인가 아니다. 성령과 관련된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의 각 측면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이 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빙크의 삼위일체적 신학에서 교회는 (문자적으로나 은유적으로나) 성령 없이는 상상할 수 없는 존재이다.” James Eglinton, *Trinity and Organism: Towards a New Reading of Herman Bavinck's Organic Motif*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2), 184. 그렇지만 그는 교회됨을 구성하는 은사와 관련지어 다루지 않는다. 성령론은 기독교론과 구원론, 교회론에 이르기까지 교의학적 주제들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지만 성령의 은사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처럼 현재 바빙크 연구의 대부분은 은사론을 직접 다루기 보다는 성령으로 인한 중생, 언약론, 구원의 서정, 은혜의 방편 등의 연구물만 있을 뿐이다. 성령론 분야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하라. H. Bavinck, *Saved by Grace: The Holy Spirit's Work in Calling and Regeneration*. 이스테반 역, 『바빙크의 중생론: 성령의 직접 사역과 은혜의 방편 사이의 관계』 (서울: CLC, 2022); 유해무,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서울: 살림, 2004), 202-228; 강웅산, “카이퍼의 중생교리에 대한 바빙크의 반론,” 『신학지남』 317 (2013), 133-164; 최홍석, “신비적 연합에 대한 헤르만 바빙크의

필요하다.⁵

본 논고는 이러한 공백을 채우는 노력의 일환으로 바빙크의 대표적 저작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큰 일』을 중심으로 그의 은사 이해를 교회의 직분과 봉사의 관계성 안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락을 구성하여 고찰할 것이다. 첫째, 성령의 은사 이해이다. 여기서는 성령의 은사를 기독교론과 교회론에 위치 시키고 그로인한 성령 은사의 목적을 다룬다. 둘째, 봉사와 직분의 은사론적 개연성이다. 이 부분에서는 은사의 실현으로서 교회의 봉사와 직분에 대해 접근한다. 여기서 바빙크는 은사의 실현을 교회론과 직분론에 국한시키지 않고 신앙과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나타내야 할 다양한 기독교적 개념으로 바라본다. 셋째, 바빙크의 은사 이해를 평가하고 실천적으로 제언한다.

II. 성령의 은사에 대한 바빙크의 이해

제 2장의 핵심 목표는 바빙크의 은사론을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이해에 집중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평가하는 일이다. 이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에서 언급하는 ‘성령의 은사’(De gave des Heiligen Geestes) 부분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 단락에서는 성령 은사가 기독교론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 방향성은 교회론적으로 흘러가며, 나아가

견해, 『신학지남』263 (2000), 38-63; 정찬도, “헤르만 바빙크 신학에서의 신비적 연합(Unio Mystica) : 기독교론과 성령론 중심, ” 『진리와 학문의 세계』27 (2013), 71-94; 차영배, “오순절 성령강림의 단회적 사역과 그 본질적 사역의 계속성, ” 『신학지남』52/3 (1985), 8-21; 유해무, “바빙크(H. Bavinck)와 제 2의 축복-차영배 교수의 바빙크 해석을 중심으로, ” 『개혁신학과 교회』2 (1992), 31-57; 태동열, “바빙크의 성령론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자유, ” 『ACTS 신학저널』43 (2020), 105-133; 이신열은 바빙크가 그의 『개혁 교의학』에서 은사를 교회론적으로 이해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찰에서 간략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바빙크의 이해는 성도의 교제와 이에 근거한 교회의 통일성의 차원으로만 국한되었다고 평가한다. 참고, 이신열, “교회의 속성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 은사를 중심으로, ” 『개혁논총』34 (2015), 153-183.

5 이은선, “한국 신학자들의 헤르만 바빙크 연구 II -『개혁 교의학』3-4권을 중심으로, ” 『한국개혁신학』74 (2022), 172-216

그 목표는 교회의 건덕과 성도의 교제, 구원의 은덕들에 있음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1. 성령의 은사 : 기독교론과 교회론을 중심으로

(1) 기독교론적 이해

바빙크가 이해하는 성령의 은사는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다. 그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로 보았다. 그의 저서 『하나님의 큰 일』과 『개혁교의학』 제 3권은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후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 언급한다.⁶ 이에 바빙크는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후 첫 번째 하신 일은 성령을 보내시는 일이었다고 단언한다.⁷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곧 승귀는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성령 부음의 분수령으

6 바빙크의 『개혁교의학』 제 3권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이후에 구원의 서정을 다룬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성령론과 연관된다. 참조, H. Bavinck, *Gereformeerde Dogmatiek* 3,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3』(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607-743, 특히 616-626. H. Bavinck, *Magnalia Dei: The Great Works of God Instruction in the Christian Religion*,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403-421. 참고로 바빙크에 의해 1909년에 발간한 *Magnalia Dei* (하나님의 큰 일)은 바빙크 사후 1931년도에 그의 동생인 베르나르트(Bernard)에 의해 개정판이 나왔다. 베르나르트는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 교회 직분 등의 내용을 1931년 새로운 판에 추가했고 이후 영역으로 출간되었다. H. Bavinck, *Our Reasonable Faith*, trans. Henry Zylstra (Grand Rapids: Eerdmans, 1956). 한글 번역은 다음과 같다. 헤르만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원광연 역 (경기: CH북스, 2017). 그렇지만 아쉽게도 영어와 한글로 번역된 『하나님의 큰 일』은 초판을 기준 삼았기에 2판에 있는 내용 전체가 실리지는 않았다. 본 내용은 다음을 참고 바람. James Eglinton, *Bavinck: A Critical Biography*, 박재은 역, 『바빙크 : 비평적 전기』(경기: 다함출판사, 2023), 555. 본 논고의 자료는 1차적으로 다음을 참고했다. H. Bavinck, *Magnalia Dei* (Kampen: J. H. KOK, 1931). 영어 번역은 다음을 참고했다. H. Bavinck, *The Wonderful Works of God*, tr. R. Carlton Wynne (Philadelphia: Westminster Seminary Press, 2019); H. Bavinck, *Guidebook for Instruction in the Christian Religion*, tr. Gregory Parker, Cameron Clauging (Peabody: Hendrickson, 2022). 바빙크의 『하나님의 큰 일』을 인용할 때는 김영규의 역을 참고하되 번역이 잘못된 경우에는 논자가 직접 번역하고 각주에 원문을 기입했다. ‘봉사와 직분’의 경우 영문과 한글 번역본이 없으므로 화란어판 *Magnalia Dei* 에서 논자가 번역했다.

7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3; 유해무는 바빙크의 오순절 성령 강림사건을 우리의 구원과 교회 (그리고 종말)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령론을 가능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첫 사역으로

로 이해한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은 아버지에게서 나오고, 아버지에게서 그리스도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에 의해 자기 교회에 부여진다.⁸

바빙크에 따르면 성령의 은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과 오순절 성령 강림의 두 측면이다. 그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령의 활동과 부여주심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를 구별한다. 구약의 성령을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생명과 구원, 은사-재능을 부여하시는 측면으로 관찰한다. 하지만 구약 자체가 예언 하듯이 성령은 마지막 날에 이뤄질 것을 내다본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성령의 은사인 것이다. 따라서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서는 구약 약속의 실현임과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부여받는 전체적인 기독교적 사역으로 연관시킨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고 세례시 같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계속해서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활하시고 일하셨다. 그는 광야로 인도 되었고(눅 4:1),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으며(눅 4:14),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셨고(마 12:28; 눅 4:18-19), 자신을 죽음에 내버리셨으며(히 9:14), 부활하시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시하셨다(롬 1:3). 부활과 승천 사이인 40일 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제자들에게 계명들을 주셨다(행 1:3, 요 20:21-22 비교). 그리고 모든 원수들을 복종케 하시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자신에게 순복케 하실 때인 승천시(엡 4:8; 뵤전 3:22) 성령을 모든 선물들과 함께 충만히 떠맡으셨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엡 4:8-10).⁹

평가한다. 유해무, “바빙크와 제 2의 축복-차영배 교수의 바빙크 해석을 중심으로,” 33.

8 개편은 은사를 성령의 소유만이 아니라 삼위일체적으로 바라본다. Richard B. Gaffin, *Perspectives on Pentecost*, 권성수 역, 『성령 은사론』(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58. 그렇지만 간략한 언급만 있을 뿐 상세한 연구는 결여되어 있다. 은사를 삼위일체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 Tom Smal, *The Giving Gift: The Holy Spirit in Person* (London: Longman & Todd Ltd, 1994); Rodman Williams,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1-3*, 박정열 명성훈 역, 『조직신학: 오순절 은사주의 1, 2, 3』(경기: 한세대학교말씀사, 2001); 이에 대한 개혁신학적 입장으로는 다음을 참고. 이신열,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살펴본 은사주의 성령론의 특징에 대한 고찰 : 로드만 윌리엄스(J. Rodman Williams)를 중심으로,” 『진리와 학문의 세계』, 14 (2006), 141-167.

바빙크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전권적으로 취하셨다. 그러나 성령이 성자보다 열등하거나 종속된 것으로 이해한 것은 아니다. 이미 밝혔듯이 성자는 성령에 의해 잉태 되었으며, 성령 안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빙크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인용하여 지극히 높여지신 그리스도를 ‘영’으로 명명한다.¹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으로 인하여 성령의 모든 은사를 얻으셨기 때문이다.¹¹ 또한 그는 “성령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고 진실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자신에게로 받아들여졌다”¹² 말한다. 성자는 성부와 성령과의 관계성 안에서 모순됨 없이 완전한 일치 속에서 그가 원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으로 바라본 것이다.

(2) 교회론적 이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성령의 약속 두 번째 사항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어진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높아지신 이후에 모든 진리로 인도할 성령을 아버지로부터 보낼 것을 약속하셨다. 바빙크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그의 교회에 보내시기 전에 우선 성령을 자기 자신에게 충만히 받아들여야 했고 자기의 소유로 삼는 일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신 구원의 일이었다.¹³ 그는 여기로부터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을 구분한다. 하나는, 좁은 의미에서 제자 곧 사도들을 위한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에서 오순절날 교회 위에 임하는 성령의 거하심이 그것이다.

9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4.

10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4.

11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6.

12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4; Bavinck, *Magnalia Dei*, 369. “Maat de Heilige Geest is gansch en al het eigendom van Christus geworden, en las het ware door Christus in zichzelf opgenomen.” 김영규의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흡수하셨다”는 표현을 쓰지만 이는 한국어의 특성상 성령의 위격적 본질이 사라져 버릴 오해의 소지가 있기에 단순히 받아들여졌다 혹은 취하셨다는 표현을 썼다.

13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6.

우선 바빙크는 요한복음에 기반하여 성령의 사역을 개진한다(요 14:16, 15:26, 16:7). 하지만 제자들에게 언급한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은 좁은 의미에서의 보내심이다.¹⁴ 따라서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찾아와 숨을 내시며 성령 받음에 대한 사도적 사명을 부여하셨다. 바빙크는 이것을 제자들이 사도직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¹⁵ 그들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 자신이 승천하시기에 앞서 성령의 선물을 그들에게 준 것은 오순절 날 모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 받을 성령과는 구별된 것으로 접근 한 것이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부여주심은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이다. 바빙크에 의하면 오순절 이전의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나타나심은 명백한 차이점이 있다. 일찍이 성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특별한 목적에서 임하셨지만, 이제 교회의 모든 지체 위에 내려 오셨고 그들 모두 가운데 영원히 거하여 역사하신다.¹⁶ 이에 대해 바빙크는 성령의 거하심이 그리스도 교회에 독립적인 실재를(*zelfstandig bestaan*)을 제공한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¹⁷

하나님은 시온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진행하여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거하셨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교회는 선교적 교회(*zendinskerk*)로서 또한 세계교회로서 태어나게 되어났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필연적인 결과였고 그 현실을 성령의 강림으로 증명하였다. 이 성령이 처음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거룩하고 완전케 하였으며 지극히 높은 곳으로 인도하였던 것처럼, 이제 그와 같은 방식과 의미를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여 그것의 완전한 성숙에 이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14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6.

15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6.

16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7.

17 Bavinck, 『개혁교의학』제 3권, 620: 바빙크는 성령 부으심으로 인한 교회의 독자적 존재를 『하나님의 큰 일』제 23장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한다. “오순절 날 그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독자적인 생명의 원리를 부여 받았고, 그 원리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적 결속으로부터 해방되었으며 그리하여 세상의 민족이나 나라들과는 완전히 별개인 하나의 특별한 교제 속으로 조직화 되었다.” 참조, Bavinck, 『개혁교의학 개요』, 645.

그의 충만함을 이루어야 한다.¹⁸

바빙크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부어주심을 사도들 개인에게 부여한 좁은 의미를 넘어 보다 넓은 의미로 이해한 것이다. 전자가 사도직을 감당하는 목적에 강조점을 두었다면 후자는 선교적인 사명과 세계 교회로의 방향성을 지닌 성령의 피조물로서의 교회 출범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빙크는 성령의 부음을 창조와 성육신 이후 하나님의 세 번째 위대한 사역으로 평가한다.¹⁹ 성령의 은사는 세계적-선교적 교회로의 탄생을 알렸기 때문이다.

또한 바빙크에게 있어 오순절 사도들의 방언은 매우 독특하게 인식된다. 그에 의하면 예루살렘에서 말한 방언은 방언과 예언의 결합체이고 외래어로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선포였다.²⁰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의 주된 내용은 무엇인가? 물론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일을 언급하는 것이지만 바빙크는 교회 탄생을 향한 큰 일로 매듭짓는다. “작지만 새로이 세워진 세계 교회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있겠는가 … 그리스도의 탄생시 허다한 천군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찬양을 올렸다. 교회의 탄생시에도 그 자신이 여러 어조로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하였다.”²¹ 이와 같이 바빙크가 바라보는 오순절 성령의 은사는 선교적 교회, 세계 교회, 보냄 받은 교회론적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2. 성령 은사의 목적

(1) 교회의 건덕

앞선 내용에서 고찰하였듯이 바빙크에게 있어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실현되며, 그 실현의 장은 교회였다. 그렇다면 성령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먼저, 바빙크는 오순절 성령의 선물 주심을 교회의 ‘건덕’(stichting,

18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7.

19 Bavinck, 『개혁교의학』제 3권, 619.

20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9.

21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9.

edification)과 연결한다.²² 사도들이 받은 은사 혹은 선물은 특별한 능력의 선포였다. 바빙크는 복음 사역과 관련하여 사도들이 받은 담대함, 위로와 기쁨, 지혜, 방언 말함, 예언, 현현과 계시, 이적적인 치유 등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확인한다. 그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는 전 사도 시대에 걸쳐 계속해서 현존하였음을 밝히며 이러한 증거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한다.²³ 바울 역시 성령의 은사 속에서 자신의 사역과 교회를 향한 섬김을 펼쳐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빙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제자들과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점에 있다. 그는 고린도전서 12:8-10절과 로마서 12:6-8절을 비교한다. 이 내용의 방점은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교회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하게 분배하고,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다.

사도는 이 모든 은사들에게 아주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이것은 성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받았던 것, 어느 것도 자신들에게 없었고 따라서 그들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은사들과 능력들은 같은 성령에 의해서 역사된 것이다.²⁴

바빙크는 교회의 건덕, 곧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주목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와 교회의 건덕은 무엇으로 결부되는가? 이와 관련하여 바빙크는 세 가지 기준점을 제시한다.

첫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성령과 모든 그의 은사들과 사역들에 관한 특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관련되어 있다.”²⁵ 그렇다면 바빙크는 교회 세움과 관련하여 왜 신앙고백을 첫 기준점으로 제시

²²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0.

²³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0.

²⁴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0-411.

²⁵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1; Bavinck, *Magnalia Dei*, 376. “*het kenmerk des Geestes en van al zijne gaven en werkingen ligt in zijne gebondenheid aan de belijdenis van Jezus als den Christus*”

한 것일까? 바빙크가 판단하기에 기독교회의 역사에는 올바른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기 보다는 비정상적으로 성령의 활동을 이해하는 부류들이 있었다. 성령에 의한 개인의 중생, 회심,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보다는 황홀하고 신비한 것에 관심을 쏟은 것이다.²⁶ 하지만 더욱 명확한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확정되기 때문이다.²⁷ 따라서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신앙고백하는 것은 성도의 연합과 교회의 통일성, 그로인한 교회의 건덕을 제공한다. 바빙크에게 있어 성령 은사는 우선적으로 성령으로 인한 신앙고백,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에 있다.

둘째는, 은사 주심에 대한 성령의 자유로운 사역이다. 바빙크에게 있어 신자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자신의 공로나 가치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성령의 자유로운 기쁜 뜻을 따라 선물로 나눠주신 것이다.²⁸ 따라서 은사를 부여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만, 멸시, 우월함을 작동시켜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진실함과 자발성, 유익함을 발동시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바빙크는 은사를 ‘질서 구별’ 혹은 ‘등급 구별’한다(*rangonderscheid*). 또한 이 모든 은사의 구별은 교회 건덕을 지향한다. “어떤 것은 다른 은사들보다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할 수 있고, 역시 좋은 은사도 있고, 더 좋은 은사들도 있으며 아주 좋은 은사도 있기 때문이다.”²⁹

셋째로, 교회 세움과 관련된 질서이다. 바빙크는 표면적으로 ‘질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바빙크가 해설하는 고린도전서의 12-14장의 맥락은 질서를 빼 놓고는 이해될 수 없다.³⁰ 바빙크 역시 교회의 건덕을 위한 질서의 개념을 알았다.³¹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랑에 대한 개념과 방언에 대한 권면을 질서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있다. 그는 사랑에 관하여 덕에 있어서 탁월함

26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2.

27 Bavinck, 『개혁교의학 개요』, 645.

28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1.

29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1.

30 은사의 질서에 대한 항목은 다음을 참고. Thomas R. Schreiner, *Spiritual Gifts: What They Are and Why They Matter* (Nashville: B&H Academic, 2018). 99-109, 특히 105-106.

31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2; 바빙크는 이 단락을 마무리 하며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인용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과 영구성에 있어 모든 은사들을 초월한다는 것을 밝힌다. 모든 은사들은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무엇보다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데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사랑이야말로 교회의 건덕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³²

또한 방언에 있어서도 질서의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바빙크는 방언에 대하여 예언보다 열등하거나 종속적인 것으로 본다.³³ 무엇 때문인가? “방언으로 말하는 자마다 그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듣는 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한 것들을 말하고, 허공에다 말하며 이성의 역할은 정지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신 이상의 인상만 남기기 때문이다.”³⁴ 그러므로 바빙크에게 있어 황홀한 방언에는 질서와 사랑, 건덕이 존재하지 않는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바빙크는 방언은 반드시 절제 되어야 하고, 또한 해석을 동반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예언의 경우는 다르다. 예언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덕을 세우며 교회를 안위하며 믿지 않는 자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바빙크에게 있어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유익하게 하며 교회 세움을 창출한다.

(2) 성도의 연합과 구원의 은덕

이제 바빙크는 성령 은사의 목적을 성도의 연합에 정초시킨다. 그에 의하면 성도의 연합은 교회의 건덕의 또 다른 장이기 때문이다.³⁵ 바빙크에게 있어 교회의 연합은 각 성도들 간의 교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뿌리를

32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2; 바울의 의도는 결코 사랑을 제시하여 상대적으로 은사의 중요성을 약화시키거나 은사에 대한 추구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과 은사를 비교하여 사랑의 우월성을 말하려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대조되는 것은 사랑과 은사가 아니라 은사를 추구하고 사용하는 서로 다른 두 방식들이다. 곧 은사가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사랑을 따라 활용될 수도 있다. 참고, 박영돈,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서울: SFC, 2013), 292-293.

33 바빙크의 견해는 개혁파 신학자들과 같은 견해를 공유한다. 개편의 경우 고린도전서 14장 전체가 방언과 관련하여 예언의 상대적 중요성과 방언의 상대적 열등성을 다음과이 설명한다. “예언은 방언보다 더 우월한 것이며 더 사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은사를 행사할 때에 교회의 유익을 위해 행사해야 한다는 대원리에 비추어 볼 때 그렇다.” 참고, Gaffin, 『성령 은사론』, 68-71.

34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2.

35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4-415.

내리고 있다는 관점과, 바로 거기로부터 교회를 세우는 선물들을 제공받는다라는 관점을 구성한다.³⁶ 그렇다면 바빙크가 이해하는 성도의 연합에는 어떤 은사적 개념들이 있는가?

먼저 성령의 현존으로 인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이다. 바빙크는 ‘성령의 은사’ 부분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잉태시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인성을 입으신 것처럼 오순절날 성령은 교회를 결코 자신과 분리될 수 없도록 그의 거처와 전으로 선택하였다”³⁷고 언급한다. 물론 교회가 성령의 신성을 입었다는 것은 아니다. 성령은 교회가 아니며, 성령은 교회에 선행한다.³⁸ 바빙크 역시 교회와 성령의 관계를 조심스럽지만 매우 긴밀하게 결부시킨다. “성령은 그들 밖에서 그들과 나란히 서 있을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머무르신 것은 일시적이었지만 그가 보내실 성령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머무르실 것이다.”³⁹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연합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로 파생된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아버지 두 분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통함으로 의식할 것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와 아버지와의 하나됨에 대해서 조명할 것이다.”⁴⁰ 따라서 바빙크에 의하면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교회에게로 오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께서 오시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삼위일체와의 교제로 머물지 않는다. 바빙크는 성도의 연합으로 접근한다.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가장 밀접히 독립되고 거룩한 하나의 교회로 연합되었다.”⁴¹

둘째, 성도의 연합은 통일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점을 제공한다. 바빙크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각 신자들의 머리, 각 지교회의 머리, 또한 전체 교회의

36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5.

37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03.

38 이 문구는 한스 쿵의 언급으로 그는 교회를 성령의 피조물로 바라보며 성령의 우선권을 강조한다. 바빙크 역시 동일한 관점을 지닌다. 다음을 참조, Hans Küng, *Die Kirche*, 정지련 역, 『교회』(서울: 한들출판사, 2007), 242-246; 쿵의 은사와 교회의 관련 연구는 다음을 참고, 이신열, “한스 쿵의 은사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연구』43 (2023), 150-182.

39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3-414.

40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4.

41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4.

머리시다. 그러므로 바빙크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신약성경의 구절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야 말로 교회의 영적 삶의 근원이며, 이 영원한 복의 원천이 교회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⁴²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연합을 발동시키는 구심점은 무엇인가? 바빙크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의 내적 연합을 강조한다. “성령은 신자들을 한 몸으로 결합시키고, 그들을 한 아버지께 인도하며,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며,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⁴³ 바빙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신자들과 함께 동참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자신을 교회에게 주신다.⁴⁴ 위의 논의에서 바빙크는 교회의 건덕을 위한 첫 기준점을 신앙고백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일이 성령의 사역일 뿐 아니라 성도의 연합과 교회를 세우는 일로 접근하였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내적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 세움을 충족한다.

셋째, 이와 같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구원의 은덕들이 베풀어진다. 이 부분은 주로 구원 서정의 한 단락으로 이해하지만 바빙크는 은사론적 개념을 제공한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은 철저히 영적이며 인격적인 것이고 그것을 주시는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⁴⁵ 그래서 바빙크는 은사의 주체인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즉 지상에 있는 교황, 사제, 교회, 성례 등은 진정한 보화가 아니다. 그는 은덕들의 보화를 그리스도 자신으로 평가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사 주심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성에서도 드러난다.

42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5.

43 Bavinck, 『개혁교의학』 제 3권, 626.

44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6; Bavinck, *Magnalia Dei*, 380. “Evenals God aan de wereld, zoo deelt Christus zichzelf aan de gemeente mede door zijnen Geest.”

45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7; Bavinck, *Magnalia Dei*, 381. “Maar de goederen, welke Christus schenkt, zijn geestelijk van aard: zij bestaan vóór alle dingen in zijne gunst, in zijne ontferming, in zijne liefde, en deze zijn door en door persoonlijk en kunnen van Christus niet losgemaakt worden.”

아버지는 자신을 아들에게 특별히 역시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로서의 아들에게 주셨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 아무 것도 남김이 없이 모두를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셨으며, 아버지의 것은 다 그의 것이며,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하나이시니, 아버지가 그 안에 있고 그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와 반대로 자신과 그의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는 자신을 아무 것도 남기지 않으셨다.⁴⁶

이처럼 바빙크는 성자께서 성령 안에서 자신이 은덕들을 부어주심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으로 보았다. 곧 장성한 분량으로의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시는 온전한 선물인 것이다.⁴⁷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충만을 신적 충만, 은혜와 진리의 충만, 결코 소멸되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의 충만으로 규정한다.⁴⁸ 따라서 이 충만으로부터 모든 구원의 은덕들이 죄사함과 중생, 새롭게 함, 위로, 보존, 인도, 성화, 영화가 흘러나온다.

III. 봉사과 직분의 은사론적 이해

이제 바빙크의 성령 은사에 기초하여 은사적 봉사와 직분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에게 있어 은사와 봉사는 어떤 관계성을 이루는가? 또한 은사는 직분을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이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큰 일』중 ‘봉사와 직분’(Diensten en Ambten)을 살핌으로 바빙크의 봉사와 직분 이해를 은사론적 입장에서 고찰하고자 한다.⁴⁹

1. 교회 봉사

46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8.

47 바빙크의 *Magnalia Dei* ‘성령의 은사’ 부분은 소명-칭의-성화 순서로 진행된다. 이는 성령 은사가 구원의 서정에 속하며 동시에 은사의 윤리적 기능을 포괄한다.

48 Bavinck, 『하나님의 큰 일』, 418.

49 바빙크의 봉사와 직분에 대한 실천적 입장은 다음을 참고하라. 박태현, “H. Bavinck의 『하나님의 큰 일』(*Magnalia Dei*)에 나타난 직분론과 한국교회,” 『복음과 실천신학』 38 (2016), 68-109.

바빙크는 봉사와 직분을 시작하면서 도르트 교회법(*Dordsche Kerkorde*)을 먼저 언급한다. 이는 교회의 선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봉사자들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이다.⁵⁰ 그는 신약 교회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와 구제-봉사하는 집사의 두 가지 직분에 국한 되었지만 기독교회는 훨씬 더 풍성한 봉사들이 있다고 말한다. “봉사는 환자를 심방하고 돌보는 일, 교리문답 교사, 강사, 반주자, 교회 관리 등이 교회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참으로 교회의 모든 회원은 동료 신자와 교회 밖의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⁵¹ 그렇다면 바빙크가 이해하는 은사와 봉사 관계는 무엇인가?

먼저 바빙크는 봉사의 원리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사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그는 그리스도를 기쁨 부름받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영혼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봉사의 모본으로 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제자들 가운데서 섬기는 삶을 사셨으며, 그들의 발을 씻기고 섬기는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 바빙크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모든 섬김 봉사의 모범인 것이다.⁵² 바빙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아버지를 섬기셨고, 마찬가지로 교회는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부름 받았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상충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의 원리이자 원동력이며, 후자는 전자의 표현이자 증거이다.⁵³

앞에서 성도의 연합을 말할 때, 바빙크는 그리스도를 모든 영적 삶의 원천으로 보았다. 봉사 역시 그리스도를 분리시켜 이해할 수 없다. 바빙크에게 있어 봉사의 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사의 열매인 것이다.

⁵⁰ Bavinck, *Magnalia Dei*, 518.

⁵¹ Bavinck, *Magnalia Dei*, 518.

⁵² 그리스도를 본 받음에 대한 바빙크의 관점은 다음을 참고하라. John Bolt, *Bavinck on the Christian Life: Following Jesus in Faithful Service*, 박재은 역, 『성도다운 성도』 (경기: 다함출판사, 2023).

⁵³ Bavinck, *Magnalia Dei*, 519.

둘째, 바빙크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 시대에도 봉사의 은사는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는 특정한 일에 봉사한 하나님의 종들 곧 구약의 사자,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를 강조한다. 그렇지만 봉사의 사역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신자들에게도 이어진다. 다시 말해, 바빙크는 신자들 역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바빙크에 따르면 신자들은 더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속량하여서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⁵⁴ 이에 사도들과 직분에 임명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맺은 섬김의 관계를 따라 구주로부터 받은 은사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바빙크가 강조하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8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의 개념이다.⁵⁵ 즉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봉사의 선물을 동일한 관점에서 실현할 것을 피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바빙크는 봉사의 일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은사의 다양성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봉사의 다양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성은 고린도 전서 12장 4-6절에 언급된 바와 같이 다양한 사역에서 비롯되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⁵⁶ 그러므로 바빙크는 모든 신자는 은사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벧전 4:10, 롬 12:6-8), 교회의 건덕을 위해(고전 12:7, 14:26) 사용해야 하며, 모든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지칭한다(벧전 4:11).⁵⁷

셋째, 봉사의 직무는 계급 구조가 아닌 은사 구조로 나타난다. 이 부분에서 바빙크가 사용하는 성경 인용은 은사와 직결되는 구절이다(벧전 4:10; 롬 12:6-8; 고전 12:7; 14:26; 벧전 4:10-11). 각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사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로 교회의 건덕과 유익을 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은사를 이해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54 Bavinck, *Magnalia Dei*, 520.

55 Bavinck, *Magnalia Dei*, 520.

56 Bavinck, *Magnalia Dei*, 521.

57 Bavinck, *Magnalia Dei*, 521.

을 찬양하는 일로 나타난다. 따라서 바빙크는 교회의 계급 구조를 은사론적인 입장에서도 철저히 반대한다.⁵⁸ “모든 신자는 영적(신령한 사람)이며,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함께 이루기 때문에 백성 위에 지배권을 행사하는 특별한 성직자 계층을 위한 자리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⁵⁹

넷째,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은사와 직분을 통해 은혜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은사와 직분으로 풍성하게 조직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은혜 왕국을 행사하고 땅 끝까지 그 왕국을 확장하는 수단이다. 교회는 모든 신자가 서로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승귀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그분의 활동을 계속하고 완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린다.”⁶⁰ 바빙크는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모든 은덕과 은사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내리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인간 본성으로 지상에 거하지 않지만, 교회 위에 부여하신 신성과 위엄과 은혜의 영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끊임없이 말씀과 영을 통해 교회를 통치하고 확장시킨다. 바빙크에게 있어 교회의 수동적인 자세나 관망하는 태도는 작동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머리이며 교회는 그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이며 교회는 가지이고, 그리스도는 주님이며 교회는 그의 종이기 때문이다.⁶¹

위의 언급된 교회 봉사의 네 가지 특징은 매우 진취적이다. 바빙크는 이를 영적 군대로 묘사한다. “교회는 자신의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온 힘을 다해 그 일을 하도록 더욱 부름 받았다. 교회가 지상에 있는 한, 교회는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모신 군대이자 전투적인 교회이다.”⁶² 바빙크에 따르면 신자들은 지상에 있는 한 모두 현역으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용할

58 바빙크의 교회론적 계급 구조에 대한 반대는 다음을 참고. 바빙크, 『개혁교회학』 제 4권, 323 이하.

59 Bavinck, *Magnalia Dei*, 522.

60 Bavinck, *Magnalia Dei*, 522.

61 Bavinck, *Magnalia Dei*, 523.

62 Bavinck, *Magnalia Dei*, 524.

은사가 있고, 유익하게 활용할 재능이 있으며, 수행해야 할 봉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2. 은사와 직분의 다양한 실현

이전 고찰에서 바빙크는 은사와 봉사를 낱줄과 씨줄처럼 엮었다. 동일한 관점에서 바빙크는 교회 직분 역시 은사와의 관계를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직분은 은사를 무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전제하고 보완한다. 직분이 없는 은사는 많지만 은사가 없는 직분은 없다.”⁶³ 바빙크의 변함 없는 관점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각 신자들에게 부여하는 은혜의 분량이 서로 다르고 은사와 직분 역시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바빙크는 이러한 차이가 신자들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촉진시키고 강화시킨다고 단언한다.⁶⁴ 바빙크는 에베소서 4:11-13절을 해설하며 교회의 제도는 성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이 시대 교회에 필요한 수단으로 평가한다. 이에 본 단락에서는 바빙크가 이해하는 올바른 직분 활용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바빙크에게 있어 직분의 활용은 은사의 목적과 같이 교회 세움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1) 말씀, 성례, 다스림을 위한 직분

첫째로, 바빙크는 가르치는 직분을 우선시한다. “교회가 은사와 직분을 통해 수행하는 모든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을 통해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에서 그 내용을 도출하고 중심을 이룬다. 모든 봉사는 본질적으로 말씀의 봉사이다.”⁶⁵ 이 부분에서 바빙크는 로마교의 탈선을 지적한다. “그리스도는 점점 더 교황으로, 그분의 공로는 성자들의 공로로, 말씀은 성례전으로, 믿음은 선행으

63 Bavinck, *Magnalia Dei*, 524.

64 바빙크, 『개혁교의학 개요』, 651.

65 Bavinck, *Magnalia Dei*, 525; 싱글레어 퍼거슨은 신약 성경의 은사 목록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부여한다고 정의한다. 참고, Sinclair B. Ferguson, *The Holy spirit*, 김재성 역, 『성령』(서울: IVP, 2017), 271.

로, 은혜는 보상으로 대체되었다.”⁶⁶ 따라서 바빙크에 의하면 로마 가톨릭은 초자연적 은사로 무장한 집단이다. 또한 성례전적이고, 사제적 교회 제도로 군림하는 특성을 지닌다. 바빙크는 로마교의 이러한 경향성을 부수고 성경으로 돌아간 시대가 종교개혁이라고 주장한다.⁶⁷ 그러므로 종교개혁자들의 기여는 신자들이 거짓 교회와 참 교회를 구별하고 참 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을 모든 사람의 손에 쥐어 준 것으로 바빙크는 평가한다.⁶⁸ 달리 말해 바빙크의 성경 이해는 성경을 목회자나 기관으로서의 교회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전체 공동체에게 준 선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빙크는 여기에 말씀 사역자의 직분을 위치시킨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신자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서로 훈계하고 가르치라는 이 부르심에 그분의 말씀의 공식적인 사역을 더하셨다. 그는 회중이 그 소명을 면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붙들어 강하게 하시고 합당한 인도를 베풀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 신자들의 모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신자들이 성경을 살펴보는 것을 감소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회중 자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강화됨에 따라 그 효과가 더욱 실질적이고 열매를 맺게 되면서 그것을 전제하고 풍성하게 한다.⁶⁹

바빙크는 여기로부터 말씀 봉사를 구약과 신약, 교회 시대에도 지속하는 특징으로 본다. 구약에서는 모세 이후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지혜자들이 나타나 주의 율례를 백성에게 가르쳤고 그리스도 역시 아버지의 뜻을 교훈하셨다. 이후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 장로의 직분을 세우셨다. 따라서 바빙크가 이해하는 주된 봉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일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직분을 갖는다.

다음으로, 성례를 위한 교사의 직분이다. 바빙크는 자기 신학의 전통을 따라

66 Bavinck, *Magnalia Dei*, 525.

67 Bavinck, *Magnalia Dei*, 525-526.

68 Bavinck, *Magnalia Dei*, 528.

69 Bavinck, *Magnalia Dei*, 529.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의 세례와 주의 만찬으로 대체된 것으로 간주한다.⁷⁰ 특히 바빙크가 로마교와 대척점에 선 것은 세례의 은덕이다. 바빙크에 따르면 로마교와 루터파는 세례의 은덕이 신비롭게 물 속에 존재하며 따라서 그 물을 통해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전달된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성례는 말씀과 분리되거나 독립적이지 않다. 이는 말씀보다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성례는 항상 말씀에 붙어 있는 표이자 인이며 말씀과 분리되면 모든 효용성을 잃게 된다.⁷¹

바빙크는 기독교는 모든 세대, 언어, 국가, 민족을 아우르는 보편적 종교임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교육의 실천을 강조한다.⁷² “자녀가 믿는 부모와 함께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된다는 가르침은 위로를 주는 동시에 양육을 위한 견고한 기초와 지지를 제공한다.”⁷³ 바빙크에게 있어 신자의 자녀들이 성찬상으로 가는 여정은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는 교리 교육이 필요하며 이것을 지도할 부모와 교회의 말씀 봉사자의 역할이 절실하다.⁷⁴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언약 자손의 부모는 가르치는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⁷⁵ 성례의 봉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한다. 바빙크에게 있어 교리 교육은 기독교회 예배의 정점인 성찬을 준비하고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일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⁷⁶

세 번째, 바빙크는 교회의 다스림과 권징을 올바른 직분 활용으로 본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거룩한 성품을 보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의 특별한 직분에 이어 장로라는 평범하고 항구적인 직분을 제정하여 그들에게 교회의 치리를 맡기셨고 그 치리 안에 권징 사역을 포함시키셨다.”⁷⁷

70 Bavinck, *Magnalia Dei*, 532. 바빙크가 성례의 봉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신조는 벨직신앙고백서(1561) 33-37항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 65-82문답이다.

71 Bavinck, *Magnalia Dei*, 533.

72 Bavinck, *Magnalia Dei*, 533-534. 바빙크의 성례에 대한 교육적 지침으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H. Bavinck, *Sacrifice of Praise*, 박재은 역, 『찬송의 제사』(경기: 다함출판사, 2020), 46-56.

73 Bavinck, *Magnalia Dei*, 534.

74 바빙크, 『찬송의 제사』, 48.

75 바빙크, 『찬송의 제사』, 50.

76 Bavinck, *Magnalia Dei*, 535.

77 Bavinck, *Magnalia Dei*, 538.

바빙크에 의하면 신자들은 교회의 머리와 왕의 지위로 승귀하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속적으로 행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직분 사역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치하신다.⁷⁸ 주님은 직분자들을 임명하셨고(고전 12:28), 열쇠의 권세를 그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이다(마 16:19). 이 열쇠의 권세는 베드로, 모든 사도, 더 나아가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이름으로 말씀의 수단을 통해 신자들을 위해 천국 문을 열고 불신자들을 위해 문을 닫을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⁷⁹ 바빙크는 모든 권세는 통치의 권세가 아니라 봉사의 권세이며, 강압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없는 순전히 영적 성격으로 정의한다. 그는 로마교를 반대하면서 교회의 열쇠권을 세 가지로 구성한다.⁸⁰ 하나, 공적 설교. 둘, 심방-개인 권면. 셋, 권징이다.

(2) 교회 밖을 향한 은사와 봉사의 활용

앞선 내용처럼 직분은 은사를 전제하고 보완한다. 직분은 교회 안에서 봉사로 행해지는 것이다. 동시에 바빙크는 은사와 봉사의 구체성은 교회 밖을 향해야 함을 언급한다. 왜냐하면 바빙크가 이해하는 교회의 봉사 사역은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논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이다.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일을 할뿐 아니라 더 큰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교회의 봉사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제시한 것이다.

바빙크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신적 기원을 갖고 있으며, 기적적인 특성을 지니며, 풍성한 유익을 주는 일이었다.⁸¹ 그렇다면 교회가 행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이며 또한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바빙크는 그리스도의 봉사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국한 되었다면 제자들에게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는 공생애 3년인 반면 제자들은 수 세기를 이어가고, 그리스

⁷⁸ Bavinck, *Magnalia Dei*, 538.

⁷⁹ Bavinck, *Magnalia Dei*, 538-539.

⁸⁰ Bavinck, *Magnalia Dei*, 539.

⁸¹ Bavinck, *Magnalia Dei*, 523.

도의 사역은 소수의 병자를 치유하고 제자를 얻는 것에 그쳤다면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방 세계를 정복하고 학문과 예술을 새롭게 하고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개혁하고 지상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였다.⁸² 제자들이 이러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⁸³ 먼저, 그리스도의 승천이다. 즉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전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위해, 교회를 대신하여,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그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 다음으로, 성령의 풍성한 은사 주심 덕분이다. 선택하신 그리스도는 교회의 일을 자신의 일과 비교할 때 더 큰 일임을 알게하고 제자들의 공로를 인정하며 풍성하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 소원을 두고 일을 성취하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자신의 선물을 씌우신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회에 특별한 자비 사역을 세우셨다.⁸⁴ 바빙크가 이해하는 구약 율법은 자비 사역을 추동한다. 성경에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체류자, 종들과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분명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빙크에 따르면 이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자비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⁸⁵ 그래서 그는 구약 선지자들이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와 정의를 강조했고, 사람들은 질병과 죽음에 처했을 때 종종 선지자들의 조언과 도움을 구했다고 말한다. 또한 바빙크가 바라보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나라는 다양한 영적, 물질적, 하늘과 땅의 축복을 포괄하고 있다.⁸⁶ 이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르렀다.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전파하고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선행 일을 행하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긍휼을 보이셨다. 바빙크에게 있어 이러한 그리스도의 긍휼 사역은

⁸² Bavinck, *Magnalia Dei*, 524; 이와 같은 바빙크의 언급은 그가 종교개혁을 새롭게 이해한 복음의 관점에서 논의 된다. 참고, 예글린턴, 『바빙크 : 비평적 전기』, 572.

⁸³ Bavinck, *Magnalia Dei*, 524.

⁸⁴ Bavinck, *Magnalia Dei*, 540; 바빙크의 자비 사역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을 참고하라. Herman Bavinck, "General Biblical Principles and the Relevance of Concrete Mosaic Law for the Social Question Today (1891)," *Journal of Markets & Morality* 13, no. 2 (2010), 411-446.

⁸⁵ Bavinck, *Magnalia Dei*, 539.

⁸⁶ Bavinck, *Magnalia Dei*, 541.

필수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본질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이다. “죄책과 더러움만 아니라 죄의 모든 결과를 제거하는 것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전인의 구세주가 되셔야 했고 마귀의 모든 일을 깨뜨려야 했다.”⁸⁷ 바빙크는 제자들이 이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부름받았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승천 후에도 제자들은 이 일을 감당했다고 표현한다.⁸⁸

여기서 바빙크의 교회론적 관점과 은사론적 관점이 발견된다.⁸⁹ 하나는 가난한 교회를 돕는 봉사와 관련하여 성도들을 위한 헌금은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증거이자 연합을 강화하는 일로 간주한 것이다. 또한 자비의 봉사 직분을 활용함으로 교회 건덕과 아울러 성도간의 연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못지 않게 병든 자들에게도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적의 능력을 통해 많은 사람을 치유했으며(행 3:6, 4:30, 5:12, 15, 16 등), 신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특별한 치유의 은사가 빈번히 나타났다는 것이다(막 16:17, 18, 고전 12:9, 10, 28).

마지막으로 바빙크는 봉사와 직분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교회의 영원한 사명에 대하여 제언한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이며 그 소명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고 유지하시는 데 베푸신 풍성한 은혜에 대해 찬양과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⁹⁰

신자들은 종종 사도 바울처럼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위한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이 회심한 후 오랫동안 지상에 머물도록 허락하시고 그분을 섬기게 하신다. 그들이 계속하여 존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유용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빌 1:24).⁹¹

⁸⁷ Bavinck, *Magnalia Dei*, 542.

⁸⁸ Bavinck, *Magnalia Dei*, 542.

⁸⁹ Bavinck, *Magnalia Dei*, 542-543.

⁹⁰ Bavinck, *Magnalia Dei*, 544.

⁹¹ Bavinck, *Magnalia Dei*, 546.

IV. 마치면서: 평가와 제언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개혁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의 은사 이해를 다음 두 가지의 관점에서 고찰했다. 첫째, 그가 이해하는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는데, 여기에는 기독교론과 교회론의 맥락이 놓여있다. 기독교론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정초하면서 성령 부어주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교회론적으로는 사도들을 위한 좁은 의미의 성령 부어주심과 교회 탄생을 향한 넓은 의미의 성령의 은사를 구성한다. 이로인한 성령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건덕과 성도의 연합, 구원의 은덕들로 구체화 되었다. 둘째, 바빙크의 은사 이해는 교회의 봉사, 직분과 개연성을 지닌다. 모든 성도들의 봉사와 직분의 실현은 교회 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한다. 나아가 은사의 실현을 교회론과 직분론에 국한시키지 않고 신앙과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나타내야 할 다양한 기독교 원리로 보았다. 이런 이유에서 기독교의 지속과 열매 맺음의 원동력은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은사 주심으로 작동된다. 마지막으로 바빙크의 견해를 바탕으로 다음 세 가지의 실천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은사의 방향성이다. 바빙크에 따르면 은사는 방향성을 지닌다.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개인으로부터 공동체로,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해 움직인다. 본래 은사는 위로부터 흘러내린 방향성을 지녔다.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 그러나 은사는 고여있지 않고 선용함으로 다시 하늘로 움직인다. 모든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성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성부께 영광을 돌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은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를 본 받는 봉사를 나타내야 한다. 은사의 실현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범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은사의 방향을 바르게 향할 수 없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방향으로 신자의 은사와 봉사를 이끄실 것이다.

둘째, 은사의 확장성이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은사와 직분을 통해 은혜의 나라를 확장시킨다. 오순절 성령의 선물로 인한 신약 교회의 태동 자체는 세계 교회, 선교적 교회로의 확장성을 지녔다. 이후 그리스도께서는 은사와 직분을

조직함으로 이 땅에서 그의 은혜의 왕국을 계속 확장시키셨다. 지금도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말씀과 영을 통해 은사를 부어주신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성장하고, 포도나무 가지인 교회는 열매맺어야 한다. 바빙크는 직접적으로 교회 성장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은사가 말로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에 바빙크가 말한 것처럼 은사를 부여 받은 교회는 진취적이어야 한다. 전투적 교회의 모습은 은사 실현의 장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셋째, 은사의 총체성이다. 바빙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할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것은 은사의 다양한 구체화에서도 드러난다. 바빙크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행하는 큰 일을 언급했다. 즉 학문과 예술을 새롭게 하고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개혁하고 지상의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총체적인 봉사의 일을 말한 것이다. 바빙크는 이를 과학의 발전이나 현대 학문의 진화로 이룰 수 있는 동력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 역시 성령의 풍성한 은사 주심으로 인정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봉사와 섬김은 전인적인 사역이었다.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궁핍한 자들에게 긍휼의 사역을 베푸시는 사역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그리스도는 영혼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전인의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들 역시 은사의 총체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인적인 봉사와 섬김을 구현하는 은사 공동체로 세워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바빙크 자료

- Bavinck, H. *Magnalia Dei*. Kampen: J. H. KOK, 1931.
- _____. *Magnalia Dei: The Great Works of God Instruction in the Christian Religion*. 김영규 역. 『하나님의 큰 일』.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4.
- _____. “General Biblical Principles and the Relevance of Concrete Mosaic Law for the Social Question Today (1891).” *Journal of Markets & Morality* 13, no. 2 (2010), 411-446.
- _____. *Gereformeerde Dogmatiek 3-4*. 박태현 역. 『개혁교의학 3-4』.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_____. *Our Reasonable Faith*. 원광연 역. 『개혁교의학 개요』. 경기: CH북스, 2017.
- _____. *Sacrifice of Praise*. 박재은 역. 『찬송의 제사』. 경기: 다함출판사, 2020.
- _____. *The Wonderful Works of God*. trans. R. Carlton Wynne. Philadelphia: Westminster Seminary Press, 2019.
- _____. *Guidebook for Instruction in the Christian Religion*. trans. Gregory Parker, Cameron Clausung. Peabody: Hendrickson, 2022.
- _____. *Saved by Grace: The Holy Spirit's Work in Calling and Regeneration*. 이스테반 역. 『바빙크의 증생론: 성령의 직접 사역과 은혜의 방편 사이의 관계』. 서울: CLC, 2022.

2. 그 외 자료

- Bolt, John. *Bavinck on the Christian Life: Following Jesus in Faithful Service*. 박재은 역. 『성도다운 성도』. 경기: 다함출판사, 2023.
- Eglinton, James. *Bavinck: A Critical Biography*. 박재은 역. 『바빙크 : 비평적 전기』. 경기: 다함출판사, 2023.
- _____. *Trinity and Organism: Towards a New Reading of Herman*

- Bavinck's Organic Motif*. New York: Bloomsbury T&T Clark, 2012.
- Ferguson, Sinclair B. *The Holy Spirit*. 김재성 역. 『성령』. 서울: IVP, 2017.
- Gaffin, Richard B. *Perspectives on Pentecost*. 권성수 역. 『성령 은사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Küng, Hans. *Die Kirche*. 정지런 역. 『교회』.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Packer, James I.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홍종락 역. 『성령을 아는 지식』. 서울: 흥성사, 2008.
- Schreiner, Thomas. *Spiritual Gifts: What They Are and Why They Matter*. Nashville: B&H Academic, 2018.
- Smail, Tom. *The Giving Gift: The Holy Spirit in Person*. London: Longman & Todd Ltd, 1994.
- Williams, Rodman. *Renewal Theology: Systematic Theology From A Charismatic Perspective 1-3*. 박정열 명성훈 역. 『조직신학: 오순절 은사주의 1, 2, 3』. 경기: 한세대학교말씀사, 2001.
- 강웅산. “카이퍼의 중생교리에 대한 바빙크의 반론.” 『신학지남』317 (2013), 133-164.
- 김영한. “성령사역은 오늘날에도 지속된다.” 『영성, 성령은사, 생명-개혁신학적 이해』. 서울: 기독교학술원, (2018), 82-100.
- 박영돈.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서울: SFC, 2013.
- 박태현. “H. Bavinck의 『하나님의 큰 일』(Magnalia Dei)에 나타난 직분론과 한국교회.” 『복음과 실천신학』 38 (2016), 68-109.
- 성민규. 『은사, 하나님의 선물』. 경기: 다함, 2023.
- 유해무. “바빙크(H. Bavinck)와 제 2의 축복-차영배 교수의 바빙크 해석을 중심으로.” 『개혁신학과 교회』2 (1992), 31-57.
- _____. 『헤르만 바빙크: 보편성을 추구한 신학자』. 서울: 살림, 2004.
- 이신열. “교회의 속성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 은사를 중심으로.” 『개혁논총』34 (2015), 153-183.
- _____.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살펴본 은사주의 성령론의 특징에 대한 고찰 : 로드만 윌리엄스(J. Rodman Williams)를 중심으로.” 『진리와 학문의 세계』, 14 (2006), 141-167.
- _____. “칼빈의 은사 이해.” 『성경과 신학』 53 (2010), 79-107.

- _____. “한스 킹의 은사 이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그의 『교회』를 중심으로.” 『조직신학 연구』 43 (2023), 150-182
- 이은선. “한국 신학자들의 헤르만 바빙크 연구 II -『개혁 교의학』3-4권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74 (2022), 172-216.
- 정찬도. “헤르만 바빙크 신학에서의 신비적 연합(Unio Mystica) : 기독교론과 성령론 중심.” 『진리와 학문의 세계』27 (2013), 71-94.
- 차영배. “오순절 성령강림의 단회적 사역과 그 본질적 사역의 계속성.” 『신학지남』52/3 (1985), 8-21.
- 최홍석. “신비적 연합에 대한 헤르만 바빙크의 견해,” 『신학지남』263 (2000), 38-63.
- 태동열. “바빙크의 성령론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자유,” 『ACTS 신학저널』43 (2020), 105-133.

[Abstract]**A Study of Herman Bavinck's Understanding of Spiritual Gifts****: With a Focus on his *Magnalia Dei***

Jae Wook Lee

(Yesarang Church, Associate Pastor, Systematic The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gifts and offices in the Dutch theologian Herman Bavinck. To do so, it sets out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and 'Service and Office' sections of his seminal work, *Magnalia Dei*. The two sections are discussed separately but are closely related. The realization of gifts, as Bavinck understood them, is manifested in office and service. He viewed gifts as presupposing and complementing office, and the principle of service of believers as the gift of Christ. Furthermore, he understood gifts as various concepts that could serve all areas of life beyond church offices. Bavinck's understanding of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is therefore examined from two perspectives. One is Christology and the other is ecclesiology. Christology plays a central role in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focusing on the work of the ascended Christ. Ecclesiology involves the Holy Spirit's outpouring for the apostles and the broader gifts leading to the church's birth. In relation to this, it is emphasized that the purpose of the gift of the Holy Spirit is to be embodied in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 the unity of the saints, and grace of salvation. Second, Bavinck's understanding of gifts was examined in relation to the service and office of the church. The realization

of the service and office of all the saints emphasizes the edification of the church and the glory of God. For this reason, Bavinck believes that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continued expansion and fruitfulness of the church is the gift of Christ. Third, Bavinck's understanding of the gift is evaluated and suggestions are made from a practical aspect.

Key Words: Herman Bavinck, spiritual gifts, Office, Holy Spirit, Church, Service

